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38호 【부제 제 25747호】 주제 106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돛이 되는 선군절을 맞으며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훈련지도를 받게 된 특수작전부대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남조선을 기어 무력으로 깔고앉아 조국통일의 광장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실 불타는 열의가 끓어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특군대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특군상장 박정천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선군절을 맞으며 조직된 이번 대상



은 포탄들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사정없이 두들겨졌다.

순간 불도가니로 화한 적진을 향하여 영용한 특수작전부대들의 섬점령전투가 개시되였다.

저공비행하는 경수송기들에서 무하되어 적대상물들에 날새마냥 가볍게 착지한 특수작전부대전투원들과 수중으로 은밀히 섬에 침투한 전투원들은 혼비백산한 적들이 정신차릴 사이없이 불사격을 퍼부었다.

이와 동시에 고무단정에 오른 전투원들도 적진에 쓴살같이 육박하여 기습상륙을 진행하였다.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원수들의 숨통을 단호히 끊어버릴 멸적의 각오 안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물타격경기는 비행대와 포병, 특수작전부대들의 긴밀한 협동밑에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며 일단 유사시 그 어떤 작전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상물타격경기는 강력한 비행대, 포병화력타격에 이어 수상, 수중, 공중으로 침투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을 습격, 파괴하며 백령도,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단숨에 점령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강대한 선군조선의 힘과 불변의 의지앞에 전몰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말마적발악, 화약내풍기는 침략전쟁광기를 무적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야말 전체 전투원들의 총천한 기세로 하여 훈련장은 용암마냥 끓어넘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적대상물타격경기진행계획을 취회하시고 공격진지를 차지

한 특수작전부대들을 돌아보신 다음 타격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출격명령을 받아들인 우리의 붉은 매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별적의 비행운을 새기며 적목표들을 쫓아 강타하였다.

이어 각종 구경의 방사포, 자행평곡사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뜨며 번개같이 날

세차게 일컫은 전투원들이 최후발악하는 적들을 어러가지 전투행동조법으로 모조리 쓸어버리였다.

공부듯이 울리는 총성과 작렬하는 화염으로 하여 백령도와 대연평도에 도사리고있는 피뢰6해병려단 본부, 연평도서방어부대 본부를 비롯한 적대상물들은 순식간에 불도가니속에 잠기고 승리의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1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전법의 요구와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대상물타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싸움준비를 위한 전투정치훈련을

통하여 다지고다져온 천백배의 보복 열기로 일단 유사시에 제살구멍부터 찾으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피뢰군 상층부것들을 사정없이 제거해버리고야말 부대장병들의 굳은 결의를 보고올리였다.

지휘관들은 언제나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적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므로써 적들의 《예방전쟁》, 《선제타격》기도를 우리 식

의 정의의 전면전쟁,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목사발만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후승리의 보고를 제임먼저 올릴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수작전부대 장병들의 기세가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 당의 훈련혁명방침을 받들고 전투조직과 훈련지휘를 현실성있게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대상물타격경기에서 잘되였다고 보는것은 훈련에서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훈련이 다양화, 다각화된것이라고 하시면서 특수작전부대의 장병들이 훈련의 질을 공고히 하는데 힘을 넣고 병종, 전문병훈련과 협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군종,

병종간 협동을 완성하는 실전훈련들을 많이 조직진행하여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공간과 전투양상에도 대비할수 있게 전투력을 비상이 높여나감으로써 일단 공격명령이 내려면 원수들이 등지를 들고있는 침략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격멸소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섭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2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앞에 나선 기본혁명과업은 훈련을 잘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훈련혁명 5대방침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전쟁환경에 접근

한 실용적실동훈련을 많이 조직하여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 조국통일대전의 맹장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

질수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하며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갔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도달하여야 할 군건설목표를 절명하기 위한 투쟁으로 장병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

다고 말씀하시였다.

대상물타격경기가 끝난 다음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경기순위를 발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섭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타격 경기는 주제조선의 무적막강한 국력양

에 분별을 잃고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려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일격에 형체도 없이 쓸어버리고 정의의 보복작전으로 적들의 소굴을 생존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릴 인민군장병들의 원쑤격멸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뜻깊은 선군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년덕으로는 선군혁명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불멸불후의 명도로 민족안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업적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담은 군중들의 꽃바구니가 끊이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씨가 적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주시는 일대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할 드리오였다.

##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돐을 맞아 25일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먼저 전용열병식광장에서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할 드리오였다.

선군혁명승리관을 찾은 그들은 주제조선의 선군혁명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할 드리오였다.

사단을 현지도하시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전공전앞에서 그들은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인민군대가 수행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화발전되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주제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머뭇머뭇 절감하였다.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1990년대 중엽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혁명이념을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 무력근으로 하여 사회주의수호전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분쇄술의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예찬의 승리와 영광의 찬란미를 느끼는 격정속에 들어버려있다.

백두산청년대장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만방에 떨치며 흥진군대앞의 앞장에 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청년들이 조선청년주의청년동맹정립 9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중시를 혁명의 전막적선으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신 백두산청년대장군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당당한 주역, 선봉대의 영예를 펼쳐서 우리 청년전위들의 위훈은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전군에게 더욱 값높이 आरो세져지고있다.

백두산청년대장군정신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나래지고 영웅청년신화가 끊임없이 창조되는 속에 지난 5년간 청년들속에서 로력영웅,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수상자가 1,500여명이 배출되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12만여명이 진출하여 비약과 혁신의 창조자로 위훈떨치고있다.

##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자랑찬 위훈으로 펼쳐가는 영웅청년대군

지난 5년간 청년들속에서 로력영웅,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수상자 1,500여명 배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12만여명 진출

최근정기가 펼쳐졌다.

강성할 조국의 재일을 위하여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만 나아가는 500만 청년들은 세상에 들도 없는 백두산청년대장군의 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백두대지에서 대동맥기지를 일떠세우는 거대한 사업을 청년동맹에 총체로 맡겨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한 청년들이 수백의 유공편지를 위한 발전조건을 산악같이 펼쳐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되풀이해 새긴 청년들대원들은 지난해 70일전투기간 이전보다 4배이상에 달하는 신화적인 전진속도, 만리마속도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완공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는 기적적승리를 이룩하였다.

《백두의 깃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포파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우정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당중앙과 운명의 피를 잇고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적대원들이 당의 뜻을 실천할하여온 청년들대원들속에서 50여명의 로력영웅들과 200여명의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속에는 평명기전진에서 많은 대상의 골조공사를 70여일만에 걸치고 청년운동사적관, 류경원, 금강제육인종합식료공장 등 60여개의 대상을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는에 공헌한 속도전청년들 대원들과 북부철길개건보수진부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 혁신자들도 있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골같은 충정을 지니고 만사함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한 강선당의 《세너어머니》, 충정의 운행길을 변함없이 달려가고있는 함경남도 산골마을의 평범한 처녀운전자, 류류영애군인의 한평생의 길동무가 되어준 평양의 살기가 청년들을 비롯한 사회주의청년미용선구자들이 조선청년의 최고상을 받아안았다.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열풍이 새차례 떠난 저 지난해 김정은청년영예상, 사리원방직공장에서 6년분 계획원수자들이 배출되었으며 2012년 이전에 비해 인민경제계획완수사태율은 1.4배, 선군청년대원봉사정위만위는 1.6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청년들이 지역자강으로 수백개의 《청년호》 기관차, 고기배 등을 마련했음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청년명칭이 새겨진 선박, 기차들은 2만여대에 달한다.

강원도청년의 창조자들과 걸력의 고강한 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석탄공업부문의 20여개 청년들대원들이 올해 5월까지 년간, 삼만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청년들은 만리마속주자대회들을 향한 진진충충적전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전폭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은 우리 당의 력사와 주제의 청년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주제혁명의 새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영웅청년정신이 온 나라에 힘있게 나래지는 속에 청년들의 사상동맹원이었던 한민청학령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수령경사용위를 삼과 투쟁의 철리로 세득한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당의 부름따라 만리마속도창조전진, 자력갱생전진군의 앞장에 선 수많은 청년

들이 대중적영웅주의의 운봉, 대바약, 대혁신의 사회주의경쟁운동에서 끊임없는 새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이들속에는 평명기전진에서 많은 대상의 골조공사를 70여일만에 걸치고 청년운동사적관, 류경원, 금강제육인종합식료공장 등 60여개의 대상을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는에 공헌한 속도전청년들 대원들과 북부철길개건보수진부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 혁신자들도 있었다.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청년영웅, 청년혁신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청년들속에서 영웅적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어 온 나라가 청년년으로 뚫어내지 않았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골같은 충정을 지니고 만사함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한 강선당의 《세너어머니》, 충정의 운행길을 변함없이 달려가고있는 함경남도 산골마을의 평범한 처녀운전자, 류류영애군인의 한평생의 길동무가 되어준 평양의 살기가 청년들을 비롯한 사회주의청년미용선구자들이 조선청년의 최고상을 받아안았다.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열풍이 새차례 떠난 저 지난해 김정은청년영예상, 사리원방직공장에서 6년분 계획원수자들이 배출되었으며 2012년 이전에 비해 인민경제계획완수사태율은 1.4배, 선군청년대원봉사정위만위는 1.6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청년들이 지역자강으로 수백개의 《청년호》 기관차, 고기배 등을 마련했음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청년명칭이 새겨진 선박, 기차들은 2만여대에 달한다.

강원도청년의 창조자들과 걸력의 고강한 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석탄공업부문의 20여개 청년들대원들이 올해 5월까지 년간, 삼만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청년들은 만리마속주자대회들을 향한 진진충충적전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다.











